

(※문화융성 로고)

2013년도 어르신생활문화전승사업

어르신문화로 가꾸는 ‘이야기 마을’
- 서민혼례 ‘잔칫날’ 재연 -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00
- 장소 : 서귀포시 성산읍 은평리 혼인지광장

서 귀 포 문 화 원

어르신문화로 가꾸는 ‘이야기 마을’

- 서민혼례 ‘잔칫날’ 재연 -

서민혼례 ‘잔칫날’ 은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공동된 경험과 지식 등 근현대적 삶의 원형을 특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간직한 생활문화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 재연한 프로그램이다.

<마을의 혼례 변천>

온평리 마을에서는 혼례에 관하여 1960년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60년초부터 전통혼례와 신식결혼식이라고 해서 전통과 신식이 혼합된 예식이 있었다. 당시 신식결혼식을 보면,

예식장이 없어 신랑댁 마당에서 병풍을 쳐놓고 예식을 하는가 하면 주로 농한기에만 치러지던 예식이 봄, 가을, 겨울에 치러졌고, 당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한복에 면사포를 쓰고 흰 고무신을 신었으며, 예물교환이 있고나면 신랑의 친구나 신부친구가 축사를 하고 신랑신부의 들러리가 2~3명씩 있고, 그 외 신랑신부 친구들이 대거 동행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그것이 1970년도부터는 다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지방에도 예식장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신부의 의상이 드레스로 바뀌고 신랑신부의 축사가 없어지고 들러리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부신랑, 부신부라고 하는 제도가 정착하면서 오늘의 예식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잔치는 보통 3일간하는 것이 통례인데,

첫째날이 가문잔치이고

둘째날이 잔칫날,

셋째날이 사돈잔치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여 잔치는 3일간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요 줄거리>

o 첫째날은 가문잔치

가문잔치 날은 말 그대로 가문들만이 모여서 잔치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여인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음식준비를 하는데, 가문잔치에 친척이나 이웃 젊은이들이 돼지를 잡는 것은 천히 여기지 않아 젊은이들이 돼지를 잡고 삶는 것은 풍습으로 여겨졌다.

돼지가 거의 살아지면 가문잔치를 하는데, 이 가문잔치라고 하는 것이 보리쌀과 쌀, 팔을 넣은 밥과 미역이나 미역이 없으면 미역새에 무우를 찧어 넣은 국과 술

한잔, 고기 한 접시를 드리는데, 가문잔치이기 때문에 일반 하객과는 달리 순대와 내장 한점 썩을 더 얹어놓고 친족 중에 어른께는 수애목을 특별히 대접함이 통례였다.

또한 마을에 상장 어른에게도 가문에게 드렸던 것만큼의 음식을 한상 차려 집에 까지 가져다드리는데 나이 많은 어른이 많은 고을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드리기도 했다.

o 들깨날은 잔칫날

잔칫날 신랑신부 댁에서는 첫 닭이 울면 식구들이 기상하여, 신랑댁에서는 신부 댁에 갈 준비를, 신부댁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보낼 준비로 잔칫날이 시작한다.

〈신랑댁〉에서는

신랑은 관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쓰고 흑화를 신고, 선재로 입을 가린채 말을 타고 그 뒤에 상객, 둘러리, 띄개진 하인들이 차례로 뒤를 따른다.

하인이 홍세함을 지고 길잡이를 하며 호, 호, 호... 새서방 소리를 하면서 신부 댁으로 간다.

이때 진행순서는 홍세함-신랑이 탄 말 -상객 -둘러리 -하인(띄개 운반할 사람) 순서로 행진한다.

〈신부댁〉에서는

신랑이 도착하면 홍세함의 예장 심사를 마친 후 도고리를 밟고 말에서 내려 노람지를 밟으며 대반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가 상을 받는다.

상을 물리고 난 신랑은 입고 온 관복과 사모관대를 벗고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흰고무신을 신고 말을 타 신부의 뒤를 따라 신랑댁으로 온다.

한편 신부는 청의를 입고 족도리를 쓰고 꽃신을 신고 뚝개에 타서 출발한다.

신부의 행렬은 이불 진 하인, 신부가 탄 띄개, 상객, 둘러리, 신랑 순서로 호, 호, 호... 새각시 소리를 하면서 신랑댁으로 간다.

〈신랑댁〉에서는

신랑댁에 도착한 신부는 뚝개에서 내려 대반의 안내로 방에 들어가 상을 받는다.

상을 물리고 난 신부는 청의를 벗고 신랑모친이 준비한 한복으로 갈아 입고 건지한 머리를 내려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준다.

이러고 나면 결혼식 예식은 그친다.

o 셋째날은 사돈잔치

아침이 되면 신랑댁에서는 신랑부친과 신랑동생 등 한사람을 정해서 쌀 한말, 술 한 되, 돼지전각을 지고 신부댁으로 간다.

이 들이 도착하면 신부댁에서는 신랑댁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을 초청해 사돈댁에서 온 음식이라고 하며 대접을 하고 이때 정식으로 사돈간의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한다.

신부댁에서도 신랑댁에서 가지고 온 것만큼을 신랑댁에서 온 여인에게 보내게 된다. 또한 신부댁에서 별도로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신랑댁에서도 신부댁에서 온 물건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친척과 이웃들하고 잔치를 치른다.

이렇게하여 3일간의 잔치는 마무리하게 된다.

<이 마을이 잔치가 타지방과 다른 점은>

첫째, 신부가 시집을 갈 때는 띄개를 타고 갔다.

둘째, 보편적으로 신랑댁 마당에서 초례식을 하는데 그 식이 없었다.

셋째, 신랑방이나 신부에 아이들이 방 가득이 앉아 있다가 신랑신부 상위에 놓여 있는 닭다리와 돼지고기, 삶은 달걀들을 뺏어 달아났다.

넷째, 신랑신부 방에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신랑신부 혹은 대반까지 밥을 남겨서 한 숟가락씩 손에 나눠 주면 그 밥을 얻어 먹었다.

특히 신부가 타고 올 띄개를 신랑 집에서 준비하여 잔치 당일에 신랑이 신부댁에 갈 때 신랑댁 하인 혹은 부락의 심부름꾼들이 분해하여 지고 가서 신랑이 신부댁에서 예식을 치루는 어간에 완전히 조립하여 신부를 태우고 온다는 것이다.

◇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

고증 : 서귀포문화원장

자문 : 온평리 노인회

기획.연출 : 정순호(서귀포문화원 사무국장)

진행 : 송종만(온평리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출연 : 온평리 마을 주민

내레이터 : 이승이(온평리장)